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양심세 할부

청하이 무상사/ 2002. 5.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남자가 관세청에 편지를 썼습니다. “소득세를 속인 후 도통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 액수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편지에 수표 150달러를 동봉해서 보내고, 그래도 잠을 잘 수 없으면 그때 좀 더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희생을 치른 이는 누구?

청하이 무상사/ 2002. 5.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7

어떤 어머니가 새 모피 코트를 걸쳐 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 보고 있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딸은 그 모습을 보기 싫어했지요. “어머니가 이런 코트를 입기 위해 가엾고 말도 못 하는 한 짐승이 고통 받아야 했다는 걸 알기나 하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몹시 화난 얼굴로 딸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네 아버지에게 대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산을 되돌려받는 방법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어떤 남자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떠난 뒤, 우산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되돌아갔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 벌써 한 쌍의 남녀가 그 방을 빌린 상태였는데,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남자가 방문 가까이 가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이 손은 누구 것?” 하고 묻자 아내는 “당신 것.”이라고 하고, “이 입은 누구 것?”이라고 묻자 그 아내는 또 “당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코는 누구 것?” “당신 것.”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방문 밖에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이따가 우산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내 거랍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의 농담

양심세 할부/ 희생을 치른 이는 누구?/ 우산을 되돌려받는 방법

2 스승님 말씀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이다/

스승에 대한 최고의 숭배는 자신의 스승이 되는 것/ 신을 영광되게 하는 성인이 되라

4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 미국/ 포모사

9 행사 메모

10 관음 가족 새해 특별 기고

태국/ 대한민국/ 포모사/ 홍콩/ 캐나다/ 코스타리카/ 미국/ 페루

16 수행 수상록

새해에 다짐하는 숭고한 결심

17/ 24/ 56 감로벌어

18 수행 일화

찬란한 새 시대

19 수행의 길목에서

마른 나무에서 짝이 트다

20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지혜를 써서 버려야 할 때를 알라

21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제지간의 신성한 관계

25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힘을 재차 확인한 신성한 체험/ 선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해 준 쌍둥이 무지개/

스승님의 은총으로 우리 로즈의 병이 나았다/ 깨달음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30 골라 뽑은 수행문답

세속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을 살라/ 영적 스승의 세 가지 유형/ 살아 있는 스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33 영원의 찰나

프리데릭 쇼팽-내면세계를 깨달은 작곡가

36 시

관음(觀音)

37 사랑의 실천

이란/ 파나마/ 태국/ 홍콩/ 포모사/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일람표/

2003년 칭하이 무상사 및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일람표

47 관음 웹사이트

48 전세계 연락처

54 예술과 영성

미(美)를 통해 기쁨을 나누다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책/ CD



신을 알려면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알 때 신을 알게 됩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출판일자 : 2004. 5. 29.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9호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깨달은 스승의 제자들은 물질과 정신, 감성, 영적인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운이 좋고 바라는 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육신을 떠나는 날에는 곧장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거론할 것도 없이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총명한 사람이 되려면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머리가 좋

긴 하지만 자신의 지력(智力)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5퍼센트나 10퍼센트만 사용해도 대단히 총명하고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으니, 이 지력을 더 많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더욱더 총명해지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기껏해야 뇌의 10퍼센트만 사용한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며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8, 90퍼센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낭비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게 느끼고 좌절감과 낙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명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신과 같이 전지전능해지거나 적어도 신의 자녀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때론 작은 문제나 일을 처리할 에너지도 없거나 일을 해도 항상 만족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알면 신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신과 똑같아집니다.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요.

스승에 대한 최고의 숭배는 자신의 스승이 되는 것

스승들은 대부분 매우 겸손합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물질적·정신적 숭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스승으로 만들고자 할 뿐이지요. 그들은 여러분이 신의 자녀이며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분이 원래대로 위대해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스승도 결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천국이나 여기, 그 어디에서든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습성상 누군가 지상 천국과 같은 아주 영광스럽고 진귀한 것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스승을 숭배하는 최고의 방식은 여러분 스스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여러분의 삶과 지혜, 여러분의 운명과 신실함을 손에 움켜쥐고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될 때라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걸맞게 되고 스승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을 영광되게 하는 성인이 되라

신을 알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신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은 미인을 창조해 여러분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녀를 사랑하게 하셨으며, 예쁘고 훌륭한 자녀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알게 하였고, 그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만 있고 신이 없다면 반밖에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테지요. 세속의 것들은 모두 잃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신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신은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영광과 원래 갖고 있

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원래 온 우주는 우리 것이니까 말이예요!

성인이 되고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즐기십시오. 부유하고 아름다운 성인이 되십시오. 내가 조금 깨달았을 적에는 수많은 고대 성인들을 모방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으며 그것들에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네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너는 내가 깨달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 하느님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일이 줄어들니까요. 하지만 신은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예쁜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보기에 더 즐거우니까요.

나는 신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지만 부처, 예수와 같은 옛 성인들은 맨발로 다니셨고 간소한 옷차림에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이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모습으로 맨발로 다니야 한다고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대답하시길, “아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현대식으로 변해야 한다! 시대에 걸맞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원하지도 않았던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나를 본다면 나를 아주 소박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에겐 위키토키, 전화, 팩스, 전자 메일 등 온갖 ‘영적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많은 ‘무기들’을 활용합니다. 한 손으로 전화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지요. 안 그러면 이 일을 신이 바라시는 대로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퀘벡 소식

2004년을 여는 멋진 박람회

몬트리올 뉴스그룹



[몬트리올] 2004년 1월 18일 몬트리올 동수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음력설 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하고 스승님의 뉴스잡지와 강연 테이프, 채식과 명상 수행의 이로움에 관한 기사를 함께 전시했다.

또 두 대의 TV로 스승님의 강연을 상영해 많은 서구 젊은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손님들의 발걸음을 끌었다. 이 외 지명도가 높은 정부 관료 및 사회 지도자들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는데, 전(前) 몬트리올 어울락 교민 회장인 두옹 반 투이 씨는 부스에 들러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외에도 동수들의 수행 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울락 사회국의 전 장관인 응오 투 씨도 스승님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사회 봉사에 대한 노고를 높이 찬탄하며 “관음 단체가 매년 음력설 축제에 함께하면서 분위기가 진작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는 투이 씨와 투 씨에게 스승님의 강연 테이프와 스승님의 자선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책자를 증정했다.

이 밖에 신문기자이자 어울락 교민 위원회 위원인 호앙 레 씨는 앞으로 몬트리올 센터에 들러 인터뷰를 갖고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어울락 신문 독자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를 소개하겠다고 얘기했다.

대체적으로 봐서 손님들은 우리 부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한 남자는 다음과 같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저는 매년 여러분 부스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는데, 다양한 국가와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가입하더군요.” 그는 스승님의 국제적인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대해 읽고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스승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액수를 이재민들에게 기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한 사형이 관음법문은 무료로 전수되며, 스승님은 신이 주신 예술적 재능으로 옷과 보석, 만세등, 그림, 노래 등을 창작해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며 이로써 생계 유지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우리가 매년 음력설 축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회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세월에 따라 검증된 정말 정의롭고 진실한 단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 사형은 덧붙여서 스승님의 무수한 무아의 봉사와 공헌을 인정해

미국 각 주에서 스승님의 공로를 기리는 많은 상을 수여했으며, 그 일례로 최근에는 스승님께서 탁월한 음악 창작성으로 인해 LA 음악주간과 LA 시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사형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이 방문객은 채식과 관음법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떠나기 전 동수들에게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와 자료를 준 데 대해 고마워하면서 돌아가면 스승님의 가르침과 인류를 위한 노고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음력설 박람회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펼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로 드리는 한편, 스승님의 2004년 신년 축하 말씀을 빌려 모든 동수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어했다. “모두들 황금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기쁨에 찬 음력설에 진리를 나누다

새크라멘토 뉴스그룹

[새크라멘토] 음력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새크라멘토 어울락인들은 2004년 1월 17일과 18일 이들 동안 원숭이해를 맞이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새크라멘토 동수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새크라멘토 센터는 부스를 하나 마련해 스승님의 경서와 뉴스잡지, 비디오테이프, CD, DVD와 더불어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방송 중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라디오 방송 시간표도 전시했다.

기상 예보에서는 주말에 흐리고 비가 온다고 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안개만 약간 끼고 날씨도 아주 따뜻해서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 들러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문의했다. 또 음력설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온 지역 TV 방송국 기자들은 뉴스잡지에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스의 정경과 활동을 녹화해 이후 주민들에게 방영했다.

황금 새해 축제에 스승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산호세 린후인 & 황금 꽃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어울락 교민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설 때면 호응이 높은 축제가 열리는데, 이름난 축제에는 어울락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동참한다.

산호세 동수들은 지난 수년과 마찬가지로 2004년 1월 24일과 25일 주말 산타클라라 박람회장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차리고 주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한편 구도자들에게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렸다.

박람회장 실내 행사장에 자리잡은 우리 부스는 스승님의 만세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과 질문을 끌어냈다. 게다가 유일하게 우리 부스만이 벚꽃으로 장식되어 있어 흥미롭기도 했다. 원래는 올해 음력설이 예년보다 일러서 벚꽃이 피려면 한참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벚꽃을 구할 수 없었는데, 우리 동수의 집에서만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던 것이다. 이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운 꽃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벚꽃 사진을 찍고 촬영해 갔다. 그 중 한 방문객은 “정말 예뻐요!” 하면서 우리 부스에 대해 연신 감탄사를 터트렸다.

축제 내내 대형 TV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 DVD가 상영되었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스승님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어울락인들은 화면에 크고 또렷하게 어울락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감회에 젖기도 했다. 한 남성은 부스 앞에 서서 스승님의

강연을 몇 시간이나 듣고 있다가 점심 시간에 우리의 초대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는 나중에 우리가 스승님을 뵈러 갈 때 같이 따라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그의 신실함을 느끼고 방편법을 배워 보라고 제의하자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또 다른 남성은 스승님의 법상을 가리키며 같이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분은 칭하이 스승님인데 가진 돈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준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무상주방』 요리책과 스승님의 시집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은 라디오와 웹사이트(www.CauThongVoiThuongDe.com)를 통해 스승님의 시 낭송을 들었다면서 “스승님의 시 낭송은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고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경탄했다. 또 한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나누어 주는 채식 요리법과 견본책자, 뉴스잡지를



즐겁게 받아 들었다. 한 여성은 부스에 와서 “돌아가실 때 스승님께 뉴스잡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잊지 말고 꼭 좀 전해 주시겠어요?” 하며 사랑스러운 요청을 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매주 토요일 산호세 AM KSJX 1500과 개설한 지 여러 해가 되는 앞서 말한 웹사이트를 통해 어울락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덕분에 현재 이 지역의 많은 어울락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평화에 대한 스승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부스를 방문한 많은 청취자와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말 논리적이어서 비록 자신들이 입문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채식의 하고 도덕적이며 고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한 방문객은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산호세 어울락 교민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모되었다고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과 양심을 회복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란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어울락 교민 사회가 영적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채식을 하고 절이나 교회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범죄와 청소년 비행, 약물 복용 또한 몇 년 전에 비하면 크게 줄었고, 현재 산호세의 어울락 폭력 조직의 문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문 법 집행관이었다. 그의 객관적인 평가에 감동을 받은 동수들은 스승님이 중생들에게 베푸신 눈에 보이는 혜택에 말없이 감사드렸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법음이 방송으로 울려 퍼질 때의 그 크나큰 가피력은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행사를 마친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산타클라라 박람회장을 떠났다. 우리는 이 의미 깊은 이틀간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 지구 황금시대의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미국 플로리다 소식

스승님의 축복으로 고양된 음력설 박람회

비키 화이트/ 올랜도



[올랜도] 2004년 1월 17일 토요일 플로리다 센터 동수들은 올랜도의 플로리다 주립 박람회장에서 열린 연례 음력설 박람회에 참가했다. 당일 아침 행사는 개막식과 화려한 용 춤과 사자춤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무

대에서는 어울락 교민 참가자들의 노래와 춤, 음악 등 각종 공연이 하루 종일 선보였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 속에 우

리는 주최측으로부터 연회장 근처의 중앙 홀에 부스를 배당받았다. 우리 부스는 연회장과 식사 지역으로 가는 주요 통로에 자리잡은 명당 자리여서 하루 종일 수많은 방문객들이 들러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듣고 문의를 해 왔다. 신실한 구도자들은 무료 견본책자와 팸플릿, 뉴스잡지를 받고서 만면에 열의를 나타냈다.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느꼈으며, 또한 이번 기회에 스승님과 인연을 맺은 데 대해, 혹은 전에 인연을 맺었다가 이번에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된 데 대해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 스승님의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그림과 『무상주방』 요리책에 대해 문의를 했다. 한 방문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칭하이 스승님의 제자들은 이곳 행사장의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 주위에는 환한 빛이 있어요!”

지역 유선 TV 채널 98의 기자는 동수들과 인터뷰를 가진 후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그는 하와이와 중서부 5개 주

에서 스승님의 공로를 기려 1993년과 1994년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선포한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고는 상사에게 말해 스승님과 채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동수들은 행사 참여에서부터 순조로운 진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스승님의 안배에 탄복하는 한편, 성인들의 새해와 새로운 황금시대를 경축하는 이 특별한 행사에서 스승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

포모사 소식

영성 대각성의 시대를 맞이하자

-진리의 향기가 은은히 퍼진 국제 도서전

[타이베이] 전세계의 이목을 끈 2004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이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엿새에 걸쳐 전세계 51개국 926개 출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도 행사에 참가해 홍법 세미나와 ‘음악 Spa’, ‘범음을 전하는 작은 천사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홍보전 등의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황금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1월 29일, 우리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종교, 철학, 과학 기술, 문화 및 사회 발전의 여러 관점에서 ‘새로운 황금시대를 맞이하며’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1월 31일에 열린 ‘음악 Spa’는 명상 수행과 의학을 결합해 심





신과 영혼의 발달을 검토함으로써 도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동안 우리는 손님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를 추천하면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한편, 이 책의 인도를 받아 모두들 하루속히 삶의 미궁에서 벗어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했다.

황금시대를 향해 나아가며

전시회 첫날 개막식을 치르기도 전에 우주 에너지를 연구하는 전문 잡지인 『인포프로(Infopro)』의 장(張) 부사장은 진작부터 우리 부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문을 신청했다. “스승님의 모든 출판물과 예술 작품에서 강한 에너지 자장이 느껴집니다.”라고 한 그는 채식을 하며 방편법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내적 체험을 한 후 입문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모녀는 스승님의 강연을 처음 들은 후 바로 방편법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잠시 몇 분간 명상하는 동안에도 보라색 꽃이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는 한 포모사 사업가는 상하이에서 『즉각 깨닫는 열쇠』 여덟 권을 탐독하고 1년 동안 채식을 한 후 입문을 받기 위해 이번에 일부러 포모사로 돌아왔다. 그는 입문을 ‘인생 최우선 사업’이라고 표현했다.

국제적 대기업을 황 사장은 우리 부스를 방문했을 때 강렬한 가피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방편법을 배운 뒤 흰옷 차림의 스승님이 수만 송이의 연꽃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잠시 후 그 연꽃들이 수만 개의 찬란한 황금 보석이 되어 땅에 떨어지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50년 동안 채식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진리를 찾아 전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종교를 공부했지만 이런 경이로운 체험은 경험한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저녁 전시회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황 사장은 부인과 의사, 직원 한 사람과 함께 부랴부랴 부스에 도착해 방편법을 배웠다. 황 선생은 가슴 떨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스승님께 담배를 끊고 입문을 준비하겠으며 온 가족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에는 ‘천사의 미소를 보라-영적 계몽을 통한 전인적 삶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동안 참석한 교육 전문가와 의사들은 태교에서부터

74세의 한 할아버지는 2003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처음 알고 『즉각 깨닫는 열쇠』 한 권을 구해서 읽어 본 후 이번에 방편법을 배우러 찾아왔다. 그는 신실하고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비록 일흔넷이라 입문은 할 수 없지만 스승님을 따라 ‘고향’에 가겠다고 애기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을 개최한 센세이오 문화교육 그룹의 회장 부인인 수 여사는 지난 수년 동안 작가와 동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구한 칭하이 무상사의 여러 업적에 대해 들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26세에 불교에 귀의한 그녀는 이 얘기들을 듣고 그동안 갖고 있던 오래된 관념을 버리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깊이 이해한 후 방편법까지 배웠다. 수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훌륭한 인도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스승님의 안배에 감사드렸다. 그녀는 또한 “긴장 속에 바빠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일 30분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거예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부스를 찾은 중위 대학의 후 교수는 평생을 기독교 연구에 몸바친 사람이다. 그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이 때문에 신심이 매우 깊었으며 성경도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생사와 여러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부스에 전시된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에 마음이 끌리게 된 그는 동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관음법문을 보다 깊이 이해한 후 방편법을 신청했다.

스승님의 끊임없는 축복과 사랑, 많은 동수들의 열렬한 지원, 그리고 각 계 분야 전문가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인해 우리 부스와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전시장에는 지성과 감성, 영성의 기운이 넘쳐흘렀다. 6일간의 행사 동안 인연 있는 120여 명이 방편법을 배웠는데, 이들은 각자 매우 좋은 체험을 하는 축복을 받기도 했다. 그 중 일부는 방편법을 배운 후 나아가 관음법문에 입문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쁜 마음으로 신의 왕국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올라타 새로운 황금시대의 풍부한 영성의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가오슝 센터, 영성 수행에 이상적인 새집을 마련하다

가오슝 뉴스그룹

[가오슝] 가오슝 동수들은 작년 9월 단체명상 장소의 임대가 끝나 갈 무렵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풍경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새로운 센터 장소를 찾아 올해 음력설에 착공식을 가졌다. 동수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수행 도장을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태국 방콕

스승님에게서 새로운 황금시대가 도래했다는 희소식을 들은 태국 동수들은 2004년 1월 15일 저녁 방콕 센터에 모여 성대한 경축 행사를 가졌다. 다채롭고 멋진 공연이 선보인 이날 행사는 특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 행사가 끝난 후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를 잘랐으며 얼굴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가 흘렀다.

스승님, 모든 중생에 대한 당신의 희생과 자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이 영적으로 고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저희의 수행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승님을 사랑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서울 동수들은 새해를 맞아 센터의 벽을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장식하고 단상 앞을 아름다운 섬세한 꽃들로 장식했으며 손으로 만든 나비를 그 위에 달아 꽃 위를 날아오르게 했다. 동수들은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장 멋진 차림을 하고 참석했으며, 행사장에는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충만했다.

영동



영동 센터 장주들과 동수들은 진정한 새해를 경축하기 위해 각자 음식과 과자 등의 마련해 와 난로가에 둘러앉아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다음 푸짐한 만찬을 즐겼다. 저녁 식사 후에 사형사자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가운데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끝을 맺었다.

부산

부산 센터는 이번에 독특한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해 표창식을 가졌다. 표창식에서는 단체명상에 가장 많이 참석한 동수, 최고 연령자 동수, 입문한 지 가장 오래된 동수, 그리고 가장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한 동수들에게 상이 주어졌다. 수상자들은 값진 선물을 주신 스승님께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한편 다가오는 새



해에는 더욱 열심히 명상하고 더 많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 대전, 광주

2004년 1월 15일 대구, 대전, 광주 동수들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새해를 경축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 세계가 영적으로 고양된 것에 흥분하며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포모사

포모사 동수들은 각 센터에 모여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신년 경축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다 함께 즐겁게 수행 가곡을 불렀다. 이 획기적이고 즐거운 공연은 '마음이 하나면 한 몸' 이나 다름없다.'는 감명을 주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누리고 곳곳이 수행 낙원이 되어 만물이 지극히 행복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길 기도했다.



홍콩

최근 전세계의 영성이 고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콩 동수들은 이 소식에 기쁨과 놀라움을 느끼곤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채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황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일련의 경축 행사에 참가했다.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신께 감사하고 새로운 황금시대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여 경축 행사를 치렀다. 동수들은 성찬을 즐긴 후 이야기꾼으로 변장한 한 사저의 멋진 공연을 즐겼다. 이 행복한 시간은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으며 절정을 이루었다. 동수들은 우주에서 가장 멋진 깨달으신 스승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선이 행사와 대규모적인 파티를 통해 진정한 새해와 온 인류를 위한 황금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사형사저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할 데 없는 흥분된 마음과 축복의 기쁨을 나타내며 만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코스타리카 관음 형제자매들은 스승님의 크나큰 자비심에 신실한 감사를 드리는 한편, 자신들 또한 내면의 사랑과 지혜를 더욱 발전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길 기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 동수들은 흑한과 빙판 길을 헤치고 센터에 모여 황금시대의 시작을 경축했다. 동수들은 즐겁게 노래부르고 춤추면서 내면의 행복과 그동안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신 스승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스승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렸다.





중서부 센터

2004년 1월 17일과 18일 주말,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 등 중서부 각 주의 동수들은 중서부의 중심인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 센터에 모여 진정한 새해를 경축하고 선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동수들과 손님들은 모두 금빛 봉투를 받았는데, 스승님의 작은 사진이 든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황금시대를 맞이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승님의 은총 속에 2004년 1월 15일 맞이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많은 노력과 신실함이 엿보인 공연을 관람한 동수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중서부 지역 동수들이 자연스레 자리를 함께한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으며, 우리는 정말 하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모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뉴욕

뉴욕 센터는 1월 18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과 친척,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경축 행사를 거행했다. 축제 등과 형형색색의 리본으로 꾸며진 행사장에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아이들도 들뜬 마음으로 팔짝팔짝 뛰어 놀았다. 동수들은 멋진 공연으로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함으로써 센터에 환희와 상서로움으로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새크라멘토

2004년 1월 25일 새크라멘토 동수들은 ‘어머니,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황금시대를 기념하는 새해 경축 행사를 가졌다. 일부 동수들이 먼저 즐거운 노래를 공연하자 다른 동수들도 따라 불렀다. 동수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한 봄’을 가져다주신 스승님의 자비와 위대함에 감사드렸다.

스승님께 보낸 어올락 동수들의 새해 연하장.



소하씨소

아시아 민간 신앙에 따르면 부엌 신이 음력 설 달 말이면 옥황상제에게 올라가 한 집안의 1년간 좋고 나쁜 모든 행적에 대해 보고한다고 한다.

부엌 신은 원래 아시아에서 비롯되었지만 서양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신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인 헤스티아와 로마의 베스타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꾸리기에 간여하고 있다.



유쾌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동서양의 부엌 신으로 분장한 동수들이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부엌신의 보고

부웅 부 &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어울락어 및 영어)

옥황상제 마마

신(臣)은 오하이오 센터를 대표해
추호의 거짓됨도 없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신이 아무 두려움 없이 말씀드리건대
작년 한 해 동안
이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행했나이다.
영화를 보거나 잡담도 많이 하지 않은 채
명상을 많이 했으며
스승의 힘에 성실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동수들과 함께
날마다 아주 열심히 명상했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배우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체험과 내면의 빛을 기대하지 말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어도 믿음을 가지자!” 하면서요.

오랜 명상 끝에 ‘깨어난’ 그들은
뭔가가 있지 않았나 떠올려 봤지만
경지가 너무 높아서인지 두뇌엔 기록된 바가 없고
어렵듯이 기억나는 것이라곤 오로지 코고는 소리뿐이었
더랍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3월 말
위대하고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아주 낮은 등급에 있던 이들도
높은 세계로 고양되어
성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그 어느 때와 달리
모두들 영혼이 고양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혀 뜻밖의 선물이었죠!



자애로운 스승님께선 그들에게 '열쇠'도 주셨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수행하라,
 그래야만 진정 자유로워지리라!'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처의 경지에 올라 영원히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요.

육황상제 마마,
 센터를 대신한 신의 말에는
 추호의 거짓됨도 없나이다.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이는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의 힘으로
 보리의 꽃이 세상 곳곳에 피어나고
 스승의 무한한 보살핌 속에
 운 좋게 해탈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스승의 축복과 기도에
 말로 다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더욱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 또한 때가 가까워졌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스승님의 사명이 결실을 이룸이 분명합니다.
 많은 중생들이 '성인'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스승님의 인도로 황금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이 이러한 영성의 씨앗을 뿌려 오셨기에
 지금 평화의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쟁을 하는 나라도 없어질 것이고
 증오심도 없어져
 마침내 사랑이 지배할 때가 도래해
 지구는 다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침내 해탈을 얻으니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때라 할 것입니다.

부엌신으로 직무를 다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즐거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뵈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
 진정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페루



리마 센터 동수들은 동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황금 새해를 경축했다. 동수들은 축하 행사를 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원을 이뤄 페루 민요를 함께 부르며 춤을 추었다. 사형사자들은 이 황금시대에 살아 계신 참 스승과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행운으로 여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애로운 최고의 스승,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두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는 신이 관음 가족 동수들과 친척, 친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깨달음을 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동수들의 감사 카드.

새해에 다짐하는 숭고한 결심

마틴 화이트 사형/ 미국 미시간 (원문 영어)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시간의 겨울 기온은 살을 에이는 듯해서 동물과 사람 모두 지독한 추위로 고생한다. 나는 채식을 하는 직장 동료가 엄동설한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헤아려 베푸는 모습을 보고는 그 모범을 따라 최근 아파트 앞뜰에 야생동물들이 먹을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오리, 다람쥐, 참새, 홍관조, 어치 등 갖가지 새로운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나의 아파트는 미시간 센터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나는 단체명상이 끝나면 동수들이 이웃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재롱을 볼 수 있게끔 창문 블라인드를 활짝 걷곤 한다. 이들이 있으면 명상할 때와 명상이 끝나고 난 후 영적인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듯한데, 이는 이 동물 친구들의 신과 같은 순수함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음식을 주면서 생기는 동정심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광경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 나는 이를 볼 때마다 플로리다 국제 선

에서 스승님께서 당신의 애완동물들에게 보이시던 사랑과 정성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동물 수호 성인(聖인)’인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와 그의 동물들 간의 특별한 관계 또한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인터넷에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한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 (참고 사이트: <http://www.americancatholic.org>)

어느 화창한 날, 동료들과 함께 이탈리아의 스포레토 계곡을 지나던 프란체스코는 문득 비둘기와 까마귀 등 여러 새들이 함께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는 친구들을 길가에 남겨 두고선 끈질기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들에게로 달려가 평소 습관대로 인사를 건넸다. 말소리가 들리면 새들이 바로 흩어지리라 여겼지만 의외로 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외감에 가득 찬 프란체스코는 새들에게 잠시 동안 신의 말씀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나의 형제자매 새들이여, 여러분은 창조주를 찬미하고 그를 영원토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깃털로써 옷을 삼게 하였고 날개로써 날 수 있게 하셨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여리고 깨끗한 공기 속에 여러분의 공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일 없이도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새들은 이 말을 듣고는 날개를 펼치고 목을 길게 뽑아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고 기쁨을 나타냈다. 프란체스코는 이어서 새들의 무리 사이를 누비며 옷자락으로 새들의 머리와 몸을 쓰다듬었다.

이어서 그가 새들 위로 십자가를 그으며 축복하자 새들은 날아갔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한 프란체스코는 훗날 동료들에게 왜 여태까지 새들과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새와 파충류,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창조주를 찬양하고 사랑할 것을 열심히 권하는 습관이 생겼다. 프란체스코의 일생을 보면 동물과 소통을 한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한번은 종교 의식 중에 새들이 시끄럽게 굴며 의식을 방해하자 새들

을 조용히 시키기도 했다!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 새들이 의식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미시간에 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로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 낚시와 사냥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품위 있으면서도 ‘사슴 사냥’이란 스포츠를 얘기할 때면 동물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한동안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신의 창조물에 대해 잔인하게 대하고 또 그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지해서 그런 것뿐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 계율인 ‘중생을 죽이거나 해치지 말라’는 원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신의 왕국 안에서 동물은 바로 우리의 형제나 다름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나는 비디오 강연회나 다른 의식 고양 행사들을 통해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깨달음과 비폭력의 의식을 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일을 해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칭하이 무상사/ 1994. 6. 7.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35

사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폭력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하신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신의 뜻에 따라야 하고 너그럽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찬란한 새 시대

매튜 서피스/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신의 돌보심과 청하이 무상사의 구원을 받아 우리는 이제 황금시대라는 수행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갖 무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리의 빛만이 남게 될 것이다.

자고이래로 수많은 경전에 예언되었던 이 시대가 지금 눈앞에 전개된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두뇌는 지금의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세계가 천국의 빛 속에 젖어들면서 인류의 불안한 마음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황금시대의 우리 삶은 두뇌에 좌우되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고향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다.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다. 우리의 두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인간의 생각은 원래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때 그 누군가나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은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이렇게하면 한 남자가 어느 날 급히 출근하다가 아침 회의를 위해 준비한 중요한 자료를 깜박 잊어버렸다. 나중에 생각이 난 그는 자료를 가지러 집에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한편 파일을 챙기도록 일깨워 주지 않은 신을 탓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도둑이 집을 뒤흔고 있는 것이 보였고 도둑은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그제야 그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신께 감사를 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의 다음 순간에 신께서 어떤 안배를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어리석은 때가 많다.

그러므로 신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황금시대에 인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신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지구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기도하는 바이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던 처음 6개월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나는 곳곳이 해 나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상을 해야 하며 예전의 생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른 나무에서 싹이 트다

플라멩코 사형/ 스페인 (원문 스페인어)

2002년 9월 입문했을 당시 나는 25세였다. 입문 전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인 관계에선 교만하고 화를 잘 내고, 시기심과 소유욕에 가득 차 있었다. 근 13년에 걸친 방탕하고 자기 파멸적인 감정적인 생활은 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으며, 이는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삶을 통제할 수 없었고 해픈 낭비벽, 불량한 친구 관계, 스트레스, 분노와 의기소침 등으로 고통 받았다. 게다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 문제까지 겹쳐 죽고만 싶었다. 불순한 생각과 알 수 없는 외로움,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문한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나를 파멸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방탕한 성생활은 더 이상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고 육체적인 병도 사라졌다. 물론 지금도 가끔 화를 내고 초조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활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입문 전 방법법을 수행할 때는 5분도 명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2시간 반 동안 명상할 수 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던 처음 6개월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나는 곳곳이 해 나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상을 해야 하며 예전의 생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계속 전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나는 규칙적으로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경서와 뉴스잡지를 읽었다. 그러자 조금씩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삼매에 들어가는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안다. 첫해가 어렵사리 지나가자 나의 생활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나의 변화에 깜짝 놀라면서 믿을 수 없어하기도 한다! 이제 나는 살의 욕이 생겼고, 또한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현명하고 순수한 인간이 되어 신께 나 자신을 맡기고 인류에 봉사하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나를 바꾼 게 ‘입문’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진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점이다! 입문 후 선악을 초월해 영원히 존재하며 언제나 순수한 이 진아는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나의 무지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크기만 하기에 매일 친구의를 정화하고 더 많이 명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신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내게 있는 사랑의 본성을 더욱 닦아 빛을 내고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써서 버려야 할 때를 알라

청하이 무상사/ 1998.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8

예전에 어떤 스승이 인도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비행기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온갖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걸어서 인도에 갔지요. 그는 인도에 가 본 적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사람이었나 봐요. 인도에 도착한 스승은 많



은 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선 온갖 과일을 팔지만 대부분이 비쌉니다. 물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스승은 아주 빨강고 길다란 과일이 큰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 가게에서 제일 싼 과일이었는데, 전혀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승은 다가가서 물었지요. “1킬로에 얼마인가요?” 그러자 상인은 2루피라고 대답했습니다. 2루피는 인도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그는 1킬로를 통째로 사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먹고 나자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입에선 침이 흘렀으며 입술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과 머리에서도 불이 나고 얼굴은 시뻘개졌죠. 기침도 나오고 목도 막혀 숨을 헐떡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 아,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건 고추라서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좋지 않아요. 고추는 양념으로 쓰는 건데, 그것도 맛을 내기 위해 음식에 조금만 넣는 거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 멍청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난 돈을 냈으니 먹어야겠소. 이게 다 돈이란 말이오!”

참 멍청한 스승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나 사업, 일에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쓰디쓴 경험을 통해 이 일

이 안 되리란 기미가 보이고 앞으로 잘되리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도 거기에 돈과 시간, 노력, 애정을 들였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두뇌가 망가진 거지요. 고추를 먹고 괴로워하면서도 지불한 돈이 아까워 멈추지 못하는 그 스승처럼요.

그러니 뭔가를 손해 보면 그냥 버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게 계속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승님께서 인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면서 남편이 내킬 때마다 여러분 엉덩이를 걷어차게 놔두거나 아내가 여러분을 계속 학대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난 그런 걸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했었지요.

뱀과 스님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뱀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게 내버려뒀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잡고 빙빙 돌리는 등 뱀을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뱀에게 일렀습니다. “나는 물지 말라고 했지, ‘씩 씹’ 소리도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겁 줘서 도망가게 하라는 말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제|시간의 신성한 관계

칭하이 무상사/ 1986. 7. 8.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CD-CE05

입문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해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절반가량만이 이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탈한 건 해탈한 거니까요. 그것을 믿든 말든 그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나와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동안 걸어가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명상할수록 더 빨리 알게 되지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인도의 한 깨달은 스승이 네다섯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절반쯤 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지독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 뱀은 인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독사였는데, 일단 물리면 끝장이었죠. 뱀에 물리자마자 제자의 얼굴은 보라색, 파란색 등 온갖 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런 뱀에 물리면 5분이나 10분을 버티

지 못했고 더더구나 해독제도 없었으니까요.

뱀에 물린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제발 스승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절 여기에 두고 그냥 스승님과 가던 길을 가세요. 저는 곧 죽어 해탈할 테니 괜찮습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하고 있을 때 스승이 알고는 다친 제자가 걱정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곧 해



탈할 테니 괜찮습니다!” 그 스승은 곧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데는 무슨무슨 나뭇잎을 상처에 문지르면 된다고 들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 나뭇잎을 구해 와 시키는 대로 하자 정말 나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친 제자의 목숨을 구한 게 나뭇잎이 아닌 스승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나뭇잎을 가져다 문지른다고 낫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매우 감동한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제자일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업장을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스승은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가던 길이나 가자꾸나.”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제시간의 관계입니다.

자상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난 기연(機緣)을 소중히 여기자

큰스승들은 불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매우 자비롭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신분을 노출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압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모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의 그 스승은 제자를 구한 후 제자들에게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잊어버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한 제자가 책을 쓰면서 이 일을 언급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큰스승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따라 배우면서도 수박 겉핥기 식이라서 스승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큰스승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야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들어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리 달마, 석가모니 부처, 노자, 장자가 알려진 것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은 거지요! 우

리는 큰스승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누군지 알 뿐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에게 배우려고 오지만 오랫동안 배우고 나서도 자신들의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명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 명상은 너무 고생스러워요!”라고 하고, 스승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면 “에이, 스승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람?”이라고 합니다. 또 스승의 강연을 들으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스승들의 강연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 강연을 들어야 하지?”라고 말합니다. (스승님 웃음)

그러나 큰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갑자기 모두들 그를 알고 그가 얼마나 위대했으며 살아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큰스승은 이런 일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곤경에 처했을 때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은 후 스승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때조차 스승은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웃음)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미신이야!”라며 우리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들은 원래부터 자신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승이 자신의 신통력이나 힘을 광고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이 아닙니다.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최대의 복이다

큰스승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제자마다 눈길을 한번 줌으로써, 머리를 만짐으로써 축복하고, 또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돕는지, 제자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가 알든 모르든 이러한 스승을 만난 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며,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스승이 머리에 손을 대기만 해

도 수많은 업장이 사라지니까요.

인도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나 신보다도 살아 있는 스승을 더 숭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은 아주 높은 분이지만 나에겐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나의 스승이 가장 높다! 불보살은 볼 수 없지만 나의 스승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불보살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스승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큰스승은 원래 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불보살의 화신이지만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인도에 아주 높이 깨달은 큰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제자가 명상 중에 5세계에 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스승이 5세계의 부처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 그녀는 스승에게 달려가서 말했지요. “스승님,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스승님은 이제까지 저희를 속이셨더군요! 스승님은 일개 범부로서 아무 신통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스승님은 신이셨습니까! 스승님은 5세계의 부처로서 가장 높으시며, 스승님보다 높은 이는 없습니다. 왜 이제껏 우리를 속인 채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그 스승이 말했습니다. “말했다 해도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지.”

이런 큰스승을 만날 수 있는 건 최대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밝힐 수 없고 말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러시아의 황제와 추방된 백성들

아주 오래전에 러시아의 한 황제가 평민으로 위장해 스페인으로 선박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술을 배우는 동안 황제는 죄를 지어 추방된 러시아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쫓겨나 스페인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고생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조국이 그리워도 황제의 명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매일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황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의 친구인데 황제를 잘 압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황제에게 여러분을 사면해 주도록 부탁하면 여러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중 몇몇은 그 말을 믿고 그를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황제와 얘기할 만한 큰 힘이 있을 거라곤 믿지 않았기에 그를 따라가지 않았지요.

황제를 따라간 사람들은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를 환영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는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하자 그들은 ‘이 사람은 권력이 큰 사람인가 봐. 영향력이 큰 고위 관리 아니면 신분이 높고 유명한 사람일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궁이 가까워질수록 환영 인파도 더 많아졌고 축하연도 더욱 성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 이분은 가장 높은 장관이거나 황제의 친척임이 분명해. 그가 전에 말한 게 진짜임에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궁에 들어섰을 때 그가 황제의 권좌에 앉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그가 황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최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을 추방할 수 있었고 지금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입문을 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최고의 힘에서 왔으며, 이제 이 최고의 힘이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 황제와 같아요. 그는 사람들을 추방할 수도 있고 고향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가장 높아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문하면 즉각 견성하고 성불한다

인도의 많은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최고의 힘을 가진 스승을 만나면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배할 필요도 없고 엮드려 절하거나 참회할 필요도 없으며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모든 면이 좋아질 것이고 원만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힘은 원래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에서 왔고 이제 그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견성(見性)하고 성불(成佛)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性)’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지 개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선사들이 말했던 ‘돈오(頓悟)’란 이런 뜻인 겁니다. 말하자면 바로 견성하고 성불한다는 거지요. 어찌면 우리는 아직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고 또 해탈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좀 전에 해준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황제에 대한 약간의 믿음을 가진 일꾼들은 그를 따라갔고 궁전에 도착했을 때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황제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이 스페인에 있었을 때 황제는 “여러분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순간부터 자유였던 겁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궁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

던 거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황제의 말을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황제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고향에 도착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입문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해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절반가량만이 이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탈한 건 해탈한 거니까요. 그것을 믿든 말든 그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나와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동안 걸어가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명상할수록 더 빨리 알게 되지요. 명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견성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괴롭고 아프고 업장이 많고 깨닫지 못한 삶을 살 뿐이지요.

이는 우리 범부가 불보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장님처럼 보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불보살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나무 불상에 절을 하며 복을 구합니다. 심지어 잡신과 귀신을 모시며 그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빌기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자인데도 밖에 나가 구걸하는 거지요!



청하이 무상사/ 1994. 6. 7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35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스승들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훌륭한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여 우리에게 항상 자비롭고 관대하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이로움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칩니다.



스승님의 힘을 재차 확인한 신성한 체험

해탈 사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최근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한 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스스로를 아주 부지런한 수행자라고 생각했었다. 도시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런 삶의 변화에 적응을 못 했다. 야간 일을 하는 바람에 케이프타운 센터의 단체명상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혼란스런 삶 속에서 명상의 보호를 잃자 점점 초조하고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갔으며, 주변 사람들과 일들을 견뎌 내기가 버거웠다. 이 기간 동안 상황을 돌파하고자 노력도 해봤지만 명상이 퇴보하면서 갈피를 못 잡은 채 얼마 안 가서는 스스로 단체명상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후 200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잠시 용기를 내어 센터를 찾아갔을 때 관음 가족의 수행 진보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불퇴보살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형사저들에 대해 알게 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지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난 곧 나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일에 치여 다시 습관처럼 단체명상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수행 진보를 간절히 바랐다. 이 시기에 아주 강렬한 내적 체험을 세 차례 하게 되었는데, 수행 일지에 기록해 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체험: 2003년 10월 21일, 온갖 것들이 얹히고 설킨 가운데 신성의 에너지가 위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와 내 가슴은 가톨릭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쥐고 있는 성심(聖心)과 같은 형상이 되었으며, 이에 햇살에 피어나는 꽃처럼 가슴이 열리고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두 번째 체험: 2003년 11월 23일,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옴” 하고 공명하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란다. 온몸이 그 완벽한 음조와 진동에 빨려 들어갔으며 지면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거기에 그대로 앉았고 몸의 모든 세포와 영혼을 다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세 번째 체험: 2003년 11월 26일, 예기치 않게 ‘명부’의 한 줄에서 내 이름을 보게 되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의 등급에 도달한 동수들의 이름이 기록된 ‘성인 명부’와 똑같아 보였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내용은 똑똑히 볼 수 없었지만 그 서식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정말 기뻐다! 그러나 잠시 후 나의 수행이





좋지 않다는 게 생각났다. 나는 손봐야 할 곳이 아주 많다.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걸 감히 믿을 수 없다. 그건 결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나는 나중에 이런 내적 체험들이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고는 이런 것을 꿈꾸는 자신의 오만함을 자책했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단체명상에 참가하게 되면서 해탈의 등급에 이른 영혼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크리스마스 축사를 보게 되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성스러운 자비의 은혜를 입게 된 데 대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제가 무지한 습관들을 바꿔 나가 스승님께 마땅한 감사와 사랑을 바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 이 사저는 빈민층과 장애인들이 폐기물과 식물 섬유를 활용해 수제지(手製紙)와 수공예품을 제작해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조의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다. “제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정보를 좀 갖고 있을진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자비심을 키워 나가도록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저의 말이다.



2003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나는 운 좋게도 캘리포니아 산호세 센터의 선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어울락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나는 노란 ‘콘플레이크’ 들 틈 속에 낀 하얀 ‘눈가루’가 되는 매혹적인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가슴을 활짝 열고 나를 반겨 줘서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랑’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오후에는 여러 동수들이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등을 달면서 센터에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그날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는데, 우리가 주방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계단 앞에서부터 차도 끝의 대문에까지 이어지는 무지개가 명상홀 입구 앞에 나타났다! 이 무지개는 내가 여태껏 본 그 어떤 무지개보다도 색깔이 선명했다. 무지개를 지긋이 응시하자 마치 어떤 힘이 그 안에서 요동이라도 치는 듯 점점 더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스승님 당신은 마음대로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나실 수 있



으니 우리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여 주시는 것 같았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견해에 매달리지 말라고 일깨우시면서 당신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자주 농담하곤 하셨으니 말이다.

장식을 돕던 데이비드 사형이 맨 처음 무지개를 발견해 우리에게 저것 보라고 가리켰는데, 그 순간 무지개 바로 뒤에 또 하나의 무지개가 나타났다! 쌍무지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처음 본 데이비드 사형은 감동한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설 새 없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주방 팀도 곧 달려 나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며 어울락어로 뭐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사형사저들 사이를 흐르며 하늘까지 도달해 빛나는 신의 우주 언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 행사 내내 분위기는 유쾌하고 편안했으며, 모두들 단순하면서도 깊은 삼매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되다니 정말 우리는 복이 많다! 산호세 선 행사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무조건적이며 깊은 사랑 속에 흠뻑 젖었다. 스승님의 한없는 축복에 정말 감사드린다.

다음 시는 이날 무지개를 보고 쓴 시이다.



아름다운 흔들림

작은 먼지 하나에서도 당신의 무한함을 봅니다.
신은 당신께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 속에서 춤을 춥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이제 강렬하고 오색영롱한 무지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 언젠가는 성인(聖人)이 될 사람.
과거에 죄 지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은 성인들이
무지개 속에서 당신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드러난 무지개는
겸손하신 당신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도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계시는 하느님과 같습니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우리 로즈의 병이 나았다

툼 웨르헤이거 사형/ 벨기에 플랑드르 (원문 영어)

관음법문에 입문한 건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온 좋은 일이다. 이때부터 나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뉴스잡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입문하고 얼마 후 누나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팔로씨 사징증(Fallot氏 四徵症, Tetralogy of Fallot)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심장의 기형화와 기타 결함을 동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장병이다. 두 명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를 확정하면서 태아가 출생한 후 초기 몇 년 동안 최소한 네다섯 번의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가족은 의사의 소견을 듣고는 모두 울고 말았다!

많은 동수들이 신실하게 명상한 결과 좋은 체험과 기적을 겪었다는 얘기들을 들어 온 나는 스승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영등이가 짓무르도록’ 명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보내 주는 한편, 그와 관련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어 아무리 심각한 병이어도 기도와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러자 나중에는 어머니도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며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몇 주 후 첫 번째 안도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누나가 다른 심장병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좀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아기의 대동맥 속의 구멍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스승님의 인도 속에서 계속 명상해 나갔다.

몇 달 후 모두들 조마조마해하는 가운데 로즈가 태어났다. 여차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후 누나 부부는 의사의 진료실로 호출을 받았는데, 의사는 희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런 일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아기의 질환이 모두 기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대동맥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긴 하지만 조직이 그 위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완전히 나았다는 뜻이었다. 의사는 팔로씨 사징증과 같은 심각한 선천성 질환은 보통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얼굴 가득히 함박웃음을 띠었으리라는 건 상상이 갈 것이다. 우리의 안도와 감사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스승님의 은총이 깊고도 깊으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한하



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스승님은 어린 로즈에 대해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스승님, 제게 신께 이르는 길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토마스 하 사형/ 미국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원문 어울락어)



스승님께서 세상의 영성을 고양시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접한 순간, 갑자기 나의 내면에서는 깨끗하면서도 아이들의 소리와 같이 유쾌한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부드럽게 빛을 발했으며, 18세기 서양 고전 음악의 교향곡과 비슷했다. 그리고 그 겨울 밤, 나무와 식물을 가만히 바라보자 오클라호마의 폭풍우 치는 겨울 하늘에서 뻗어 나오는 오색영롱한 빛을 보기도 했다. 순간 나는 갑자기 환희심이 북받쳐 올라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느낌은 생전 처음이었다.

2004년 1월 17일 오클라호마 센터의 단체명상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강렬한 광선이 섬광과 같은 속도로 내 머리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와 한 곳을 투사했다. 거기에선 에메랄드빛의 호수 옆에 장엄한 황금 궁전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무수히 많은 꽃들이 신묘한 천상의 음악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 꽃들은 스승님이 그리신 '천당화'에 나오는 꽃들과 비슷했는데, 다음 순간 아름다운 달의 요정으로 변해 우아한 춤을 추었다. 당시 나는 외적인 '나'의 존재에 대해선 느낄 수 없었지만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순수한 깨달음으로 충만되었다. 이 아름다운 천상의 왕국과 그 행복감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런 불가사의한 색채와 형상, 선율, 빛,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 찬 이 놀라운 광경은 내가 이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이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거대한 태양의 아주 작은 물방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을 초월한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자비심과 사랑, 진리는 지금까지도 내 의식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7. 8. 27. 영국 런던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95

세속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을 살라

질문: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스승님께서 항상 내면의 스승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속의 일과 생활을 추구하거나 구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사업과 수행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승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출가하거나 혼자 히말라야에 가고 싶은 건가요?

질문: 때로는 그쪽에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스승님: 우린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연극을 하고 있으니 기왕 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 오랫동안 연극을 하면 피곤하지요. 그때는 한동안 안거를 하면 됩니다. 히말라야에 가거나, 여기 선에 오거나 다른 데 가서 안거를 하면서 정신을 회복하고 원기를 재충전하는

거지요. 우린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살고 싶어해서 한 가지 생활 방식만 선택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히말라야나 티베트에 가서 평생을 신을 찾는 데 바칩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성공한 셈이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개인의 업장과 인연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길이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군요. 어쩌면 당신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운명이어서 계속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중도를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좀더 다채롭고 흥미로워지지요.

영적 스승의 세 가지 유형

질문: 제가 인생과 수행 과정 중에 겪는 중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제 사업을 영적인 일로 승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히말라야에 가서 이것에서 멀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적·외적으로 스승과 교통해 인도를 구하라는 스승님의 말씀은 저를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저 자신의 평화와 저만을 위한 시간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승님: 네, 외적인 스승은 여러분이 자신의 스승, 즉 진아를 만나도록 인도해 줄 뿐입니다. 스승은 길을 알려 줄 뿐이므로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운전해 가야 합니다. 때로 외적인 스승이 곧 내적인 스승이라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외적인 스승은 그냥 외적인 스승일 뿐 내면의 스승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내면의 스승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 스승이 외적으로는 화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외적인 스승으로서 이론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알려 주는데, 이런 스승 또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나 현재의 내면의 스승입니다. 여기서 ‘내면’이란 좀더 높은 의식의 경지를 말하는데, 이런 스승은 육체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세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경지에 있을 때라야 교통할 수 있지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나 부처처럼 내면에서만 존재하는 거지요. 때로 깊은 명상에 들면 이러한 과거 또는 현재의 스승들과 닿을 수 있지만 오직 내적인 경지에서라야 가능합니다. 길에서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지요. 이것이 내면의 스승입니다.

또 다른 스승은 내면보다 높은 의식의 경지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질 수도 있고, 악수하거나 얘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적·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을 찾기로 다른 두 유형의 스승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스승은 찾기가 좀 쉽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스승을 찾는 건 그보다 좀더 어려운데, 이는 내면의 스승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 높은 의식의 경지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은 다른 두 유형들보다 더욱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외적인 스승은 내면의 스승을 만나도록 인도해 줍니다. 만일 스승이 동시에 외면과 내면의 스승이라면, 그 스승은 대단히 깨달은 존재로 외면은 말할 것 없이 내면의 모든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스승은 아주 드물지요. 예수나 부처 같은 이들만이 이런 진정한 스승에 속합니다.

살아 있는 스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질문: 어떤 스승이 내면의 스승과 닿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그 스승의 육신과 떨어져 다른 스승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도 다 내면의 스승을 따르고 있으니 같은 동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승님: 그건 당신이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찾은 스승이 이 물질 세계에서 외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을 뿐 그 자신은 내면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당연히 다른 스승을 찾아가 다른 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또 당신이 내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스승, 예를 들면 명상을 하면서 예수가 내면으로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게 환상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가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깊은 삼매에 들어 영적인 깨달음의 상태에서나 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론 다른 곳에 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 함께 명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적인 경지에서뿐 아니라 내면의 의식 세계에서든 나눌 수 있는 스승을 만났다면 그 스승이 어디에 있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승은 무소부재하니까요. 일단 이런 스승과 연결되면 그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세계에 있든 외부세계에 있든, 지옥, 천국, 그 어디에 있든 이런 스승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스승은 육신일 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스승이나 선생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내면과 외면에서 모두 스승인 분과 소통하면 그 스승과의 연결 고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스승과 어울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오래전부터 나는 나의 음악 세계는 인류의 마음과 영혼이라고 결정했다.”

~프리데릭 쇼팽~

프리데릭 쇼팽

내면세계를 깨달은 작곡가

리처드 스투어트 사형/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19세기 작곡가 프리데릭 쇼팽(1810-1849)은 음악사상 창조 정신이 가장 뛰어난 영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의 작곡 스타일에서는 다른 작곡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폴로네이즈(완만한 무도곡)나 발라드(서사곡) 같은 그의 수많은 작품들이 자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이루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구성이나 형식에서 매우 독특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평형 감각과 구성 감각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원천에서 솟아 나온 듯하다.”라는 한 평론가의 말처럼 말이다. 그래서 쇼팽은 이전 작곡가나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천’, 즉 깨달음을 통한 천상과의 접촉에서 바로 얻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측은 그의 친구였던 헝가리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지상을 위해 작곡되었구나!
신의 너그러운 허락으로 내려와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구나.

새로운 작품은 꽃무리 되어
옛 작품을 둘러싸고
아름다운 선을 속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리스트의 『쇼팽의 생애』 서문 중에서-

생애

쇼팽은 바르샤바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으며 어머니는 폴란드 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음악을 좋아해서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떠오르는 영감을 악보에 옮겨 적는 법도 모를 어린 나이에 작곡을 시작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곧 두각을 나타내어 신동 모차르트에 비교되곤 했다. 15세에 첫 작품을 발표한 데 이어 17세에는 바르샤바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겸 천재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훗날 폴란드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그는 스무 살이 되던 해 낭만주의 운동의 예술 중심지였던 파리로 이주해 어쩌다 한번씩 갖는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서 여생을 보냈다.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쇼팽은 대중 공연을 기피하는 대신 친구들을 위해 연주했으며, 피아노 교습과 작품 판매로 생계를 유지했다.

“만약 이 아름답고도 오묘한 음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면, 이는 쇼팽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쇼팽은 그 누구보다도 내면세계의 소리와 체험의 본질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 낸 작곡가이다.”

-현대 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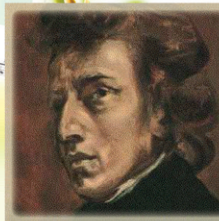
창작 활동

쇼팽은 주로 피아노 곡을 작곡했는데,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주 독특한 방식을 통해 피아노를 ‘노래’ 하게 해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었다. 그의 서정성과 선율에 관한 천재적인 재능은 피아노 곡 중 가장 아름다운 곡들을 탄생시켰고,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음악사상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목이 되었다. 그는 몇 안 되는 세계적 거장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명성은 결코 퇴색하지 않는다. 그가 작곡한 거의 모든 곡들은 고정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미국 피아니스트인 아더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은 이렇게 말했다. “쇼팽의 첫 번째 음표가 콘서트 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청중들은 그 곡을 알아채고는 행복해한다. 그의 곡에는 독특한 표현 방식과 개인의 예술성이 잘 드러나 있다.” 쇼팽의 작품은 연주회나 음악 앨범에서 자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한 발레인 「레실피드(Les Sylphides)」와 「피아니스트」, 「샤인」, 「트루먼 쇼」 등의 수많은 영화 작품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쇼팽의 매력은 주로 사람들에게 천상의 음악, 즉 그의 창작 영감의 원천이기도 한 내면의 소리에 대한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능력에 있다. 쇼팽의 귀감이었던 세바스찬 바흐 또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바흐는 그의 작품은 결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아 신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여겼다. 이런 진정한 음악 천재들은 음악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묘사하고자 하는 단순한 열망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한 현대 평론가의 다음 말처럼 말이다. “만약 이 아름답고도 오묘한 음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면, 이는 쇼팽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쇼팽은 그 누구보다도 내면세계의 소리와 체험의 본질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 낸 작곡가이다.”

이 때문에 천상의 소리와 조화로운 소통을 이룬 쇼팽의 민감하고 영감이 풍부한 천성은 그의 작곡가 겸 연주가로서의 무한한 재능을 펼쳐 보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세기 피아니스트인 안톤 루빈스타인(Anton Rubinstein)은 쇼팽을 일컬어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음유시인, 피아노의 정신,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칭하며 “피아노의 혼이 그를 숨쉬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모든 음악적 표정들이 모두 나타나 있으며, 그는 피아노를 통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 작품 번호 34의 2번 화려한 원무곡(Op. 34, No. 2 Valse Brillante)에서 보이는 폭넓은 표현력은 인간의 영혼을 친밀하게 해석해 높은 세계의 음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펼쳐 보였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높은 세계의 음악에 대해 ‘천상의 음류의 가르침’이라고 칭했다. 사실 많은 피아니스트와 학자들은 쇼팽의 왈츠를 두고 그의 심오한 영성을 반영한 ‘영혼의 춤’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시(詩)로서 작곡가의 고양된 상태와 내면의 갈망, 강한 인도주의적 느낌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쇼팽 시대의 『음유시인(Le Menestrel)』이란 잡지는 “(그는) 손끝으로 간신히 이 인간 세상에 속해 있을 뿐 높은 세계에 대한 꿈으로써 살아 성장하는 피아노의 신(神)이다. 쇼팽의 연주를 들어 보면 마치 꽃이 한숨 쉬고 구름이 속삭이며 별들이 소곤거리는 것과 같다.”라고 썼다.

높은 세계와의 연계를 통해 쇼팽은 매우 자연스럽게 곡을 창작했다. 이 점은 쇼팽의 친구인 소설가 오로르 뒤드방(필명: 조르주 상드)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창작력은 자연스럽게 경이롭다. 그는 막 찾거나 미리 구상하지 않아도 찾아낸다. 그의 영감은 불현듯 갑작스레 피아노에 나타나 완전하고도 탁월하게 솟아 나왔다. 때로 길을 걷는 도중에도 노래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나오는 바람에 그는 서둘러 선율을 피아노로 옮긴 후 다시 쳐 보곤 했다.” 이 논평을 보면 창작할 때는 내면의 영감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솟아 나온다고 묘사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이 떠오른다. “나의 영감은 내면에서, 내 머리 안에서 나오지요! 때로는 색상이나 도안이 그리기도 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해야 합니다. 또 영감이 충만할 때는 하루 만에 열 개, 스무 개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룻밤 새 옷 30벌을 디자인할 때도 있습니다.”

쇼팽은 겸손하고 집착이 없고 단순한, 깨달은 자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테면 쇼팽이 초기 작품인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작품 2번’에 대한 연주를 마치자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인 로버트 슈만은 지금은 유명한 구절이 된 “신사 여러분, 모자를 벗어요. 천재의 등장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당시 쇼팽은 매우 겸손한 반응을 보이며 대중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얼마 안 있어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또 그의 편지 중에서 발췌한 글들을 보면 이 작곡가의 집착 없는 태도와 단순한 천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혁명가입니다. 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함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이는 칭하이 무상사의 다음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천상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사사건건 지나치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한 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쇼팽의 일생과 남은 글들을 통해 그가 이러한 이상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맺는 글

쇼팽이 서른아홉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인해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 당시 곁에 있었던 아베 젤로위키(Abbe Jelowicki)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쇼팽은 임종시 정말 행복해 보였으며 또한 아주 만족스럽다고 다른 이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그는 무한한 환희와 신의 사랑만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이 어서 육신을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 요셉의 이름을 부르더니 쥐고 있던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갖다 대며 큰 소리로 “난 지금 은총의 근원에 있다.”라고 외쳤는데, 이는 그 스스로 무한한 천국의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처럼 말이다. “생사의 경계를 영원히 초월합니다. 매우 나약하고 겁에 질린 영혼이 이를 이해하여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면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어쩌면 이때의 쇼팽은 편지에 “단순함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라고 했던 그 상태에 도착했었음이 분명하다.

관 음(觀音)

아르카 사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원문 인도네시아어)

가만히 내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조용히 소리를 관하니
성스런 명호가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달과 태양이 하나로 합쳐진다.

문을 닫고 빛을 관하니
불길이 삶의 기록을 태워 버리고
창문을 닫고 소리를 느껴 보니
영혼이 음률 속에 춤춘다!

당신의 성스런 손, 모든 욕구를 녹여 버리시고
당신의 자애로운 포옹, 절망을 몰아내시며
당신의 미소, 세속적인 갈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의 눈길 하나, 사바의 열경 모두 다 태우신다.

백 개의 태양이 빛나고
우렁찬 천둥 소리 들리는데
나는 자비의 바다에 깊이 빠져
해탈 속으로 스러져 간다.

이란 소식

이란 지진 이재민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의 단비를 맞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3년 12월 26일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지진이 이란 남동부 케르만 지역의 밤(Bam) 시를 강타해 대규모적인 피해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아울러 수만 명이 집을 잃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서서는 즉시 긴급 구조 활동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싱가포르와 이란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이 2004년 1월 1일 이란에 도착하게 되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구호 팀은 세 조로 나뉘었다. 한 조는 테헤란에 남고 남은 두 조는 케르만으로 향했다. 케르만 공항에 도착하자 다시 한 조는 차를 타고 밤 시로 향했다. 밤 시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도가 있긴 했지만 도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흙벽 건물들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려 그 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만 해도 큰일이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전(全)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위치를 파악해 물품을 배포할 지역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우리는 밤 시가 몇 개 지구로 나뉘어 있고 각 지구는 각기 다른 관할에 속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스승님의 위로와 지원이 절박한 지역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존자들을 방문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진으로 살 곳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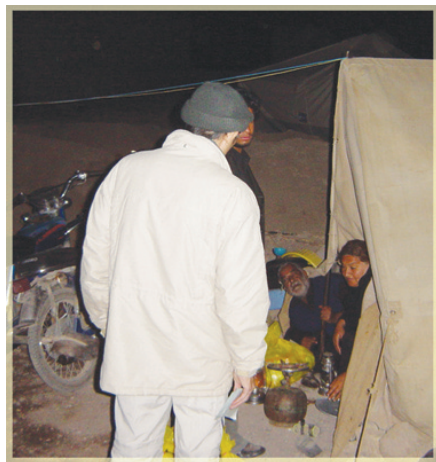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까지 잃기도 했다. 우리는 이란 사저의 도움으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냐고 물었다. 그 결과 개인 위생용품과 속옷, 슬리퍼, 장난감, 고온 처리된 우유 등 십여 가지 정도의 생필품 목록이 작성되었다.

이 목록을 받은 케르만에 있는 구호 팀은 서둘러 물품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사실 그쪽 동수들은 케르만에 도착하면서부터 자체적인 구호 작업을 시작해 바쁜 상태였지만 시장 상점 주인들과 이웃들에게 구호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물품을 밤 시까지 수송할 트럭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래 테헤란에 있었던 구호 팀이 케르만으로 와서 구호품 구입과 포장을 도와준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물품 구입을 신속히 마칠 수 있었다. 가게 주인들은 우리가 구입한 물품들이 밤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달될 것이란 것을 알고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중 우

리에게 슬리퍼를 판 상점 주인은 우리가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도록 자신의 창고를 빌려 주기도 했다. 창고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물건들을 적재해 두었다가 2004년 1월 7일 밤에 모든 포장을 마쳤다. 각 선물 꾸러미에는 위로금도 담아 두었다.

다음날 오후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트럭 두 대에 구호품이 실렸다. 지역 주민들은 한





동안 비 소식이 없었던 터라 이번 비를 매우 반가워했다. 물품들을 밤 시까지 수송하는 동안 내내 쏟아지던 세찬 비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바로 그쳤다. 우리는 이어서 구호품 꾸러미를 이란 사저의 친구 아파트에 내렸다.

그 아파트에 마당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선물 꾸러미를 더 준비할 수 있었다. 더욱더 좋았던 것은 이 아파트가 경비원이 있는 특별 경계 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승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렸다.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밤이 된 후에야 구호품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첫날밤부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구호품과 함께 트럭에 탄 우리는 배포 지역에 도착하자 차를 배포 지역 외곽에 주차시킨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해 각 지점으로 물품을 옮긴 다음 다시 한 번 걸어서 각 지역의 지진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선물을 전달했다.



일부 배포 지역에서는 경찰이 경호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구호품 꾸러미를 나누어 주는 동안 우리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트럭은 경찰서 근처에 주차시켰다.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은 구호물품을 싣도록 스포츠용 차량을 제공해 주는 한편 물품을 나눠 주는 일까지 도와주었다. 우리가 빌린 택시 기사들도 도와주었다.

둘째 날 밤에도 물품 배포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선물 꾸러미를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구호품을 나눠 주자 몇몇 이재민들은 텐트에서 달려 나와 우리와 신께 고마움을 표했다. 국내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일일이 나눠 주기로는 외국 단체 중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유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외 다른 사



베지스티 고아원에 보낼 선물 꾸러미.



람들은 텐트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서 우리가 텐트 입구에 스승님의 선물을 갖다 놓는 것도 몰랐다.

밤에 있는 동안 구호 팀은 한 지역 주민의 인도를 받아 찾아간 교육 사무실에서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문구용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필요한 문구용품이 전부 들어 있는 세트를 보내 주었다.

1월 11일 오후 5시, 대원들이 밤에서 성공리에 구호 활동을 마친 결과 사흘 밤 동안 약 3,250개의 선물 꾸러미가 배포되었다. 구호 팀이 밤 시에 머무는 동안 여러 번의 여진이 있었다. 그 중 아침 8시에 일어난 제일 큰 여진은 우리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우리는 그날 중으로 케르만으로 되돌아갔다.

케르만에 도착한 후 구호 팀은 바호나르(Bahonar) 병원과 복지기관인 베지스티(Behzisty)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밤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 베지스티 산하 고아원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대개는 현재 부모나 친척들에게 돌아갔다. 우리는 그 중 한 고아원에 밤에서 온 세 살 이하의 어린이 19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는 매트리스와 담요, 베개, 베갯잇, 장난감, 분유, 문구용품과 기타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해 이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고아원 근처에 자리한 바호나르 병원에는 밤에서 온 46명의 환자들이 수용돼 있었다. 구호 팀은 이 환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이 퇴원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물품 항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 물품을 구



입한 우리는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며 스승님의 애정 어린 선물을 전달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선물 꾸러미에는 위로금이 포함되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방문할 수 없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들에게 사과 주스와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및 우유 등의 음료수가 필요하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매일 20리터가량의 음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한 달 공급량이 더 되는 분량을 사서 병원 측에 전달했다.

구호 팀은 테헤란으로 되돌아갔을 때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민간 단체 RRG(Raad Rehabilitation Goodwill Complex)의 도움으로 케르만에 있는 지진 희생자들에게 변기가 딸린 휠체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수들은 서둘러 RRG 측에 휠체어 72대를 구입해 주면서 케르만 지진으로 인한 환

자들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란에 있는 동안 구호 팀의 동수들은 피곤한 줄도 모른 채 스승님의 많은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사랑을 받은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

이 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면서도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보여 준 데 대해 감동했으며, 필요한 때에 우리 단체가 베풀어 준 사랑의 실천에 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란 밤 지진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리알)

내역	금액	영수증
구호물품	381,286,160	B1
학생들을 위한 문구용품	23,705,500	B2
베지스티 고아원에 선물 기증	27,350,000	B3
바호나르 병원에 선물 기증	21,967,000	B4
RRGC 측에 번기가 딸린 휠체어 기증	117,725,904	B5
운송비	7,520,000	B6
총액	579,554,564 (미화 약 70,000달러)	



파나마 소식

2004년 새해 자선 활동

마리자 드 리온/ 파나마 시 (원문 스페인어)

파나마 센터 동수들은 인류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2003년 12월 29일 오후 파나마 시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세로아즐의 란초카페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과일을 비롯해 20여 가지의 식품이 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 지역 가톨릭 신부는 미사를 마치자마자 물품을 받을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주었다. 그 중 가장 가난한 여섯 세대에게 선물이 전달됐는데, 이들은 설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다. 한 사제



가 추위에 약한 어린이와 할머니들에게 담요를 나누어 주는 동안 다른 사제는 견본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이 모든 것이 스승님께

서 보내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얘기도 해주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스승님의 사랑 어린 관심에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란초카페 마을에서 펼친 새해 선물 나눠 주기 활동을 통해 파나마 센터 동수들은 많은 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우선 스승님은 항상 당신보다 중생의 이로움을 우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먼저 예고를 극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선행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면 가장 깊고도 순수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파나마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국 소식

스승님의 축복으로 영광된 새해를 시작하다

방콕 뉴스그룹

2004년 1월 1일 태국 동수들은 방콕에 모여 300개의 선물 세트를 준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콕 승려 병원의 출가승 환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번 사랑의 활동은 우리에게 진리를 나누고 좋은 인연을

맺고 그들에게 위문품도 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선물 세트에는 영양 식품, 수건, 비누, 칫솔, 화장지, 흡입기 및 스승님의 견본책자가 포함되었다.

매년 1월 1일이면 많은 태국인들이 이 병원을 방



문해 아픈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람들의 발길로 들떠 있었는데, 태국 동수들은 이 특별한 기회를 맞아 견본책자를 나눠 주기도 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속에 이번 활동은 활기차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홍법 행사를 마친 후 많은 동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차청사오에서 선이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해서 태국 동수들은 강한 도심과 전심전의로 스승님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였다.



홍콩 소식

엄동설한에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홍콩 동수들은 추운 음력설 연휴 동안 거리의 노숙자들과 위안조우 노숙자 센터의 노숙자들에게 방한복과 채식 샌드위치를 나눠 주는 가슴 훈훈한 사랑의 활동을 전개했다. 홍콩 동수들은 오리건 동수들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어 샌드위치마다 감로법어와 관음법문 웹사이트 주소를 붙였다. “동수들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거기에 감로법어를 붙였어요! 참 독창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노숙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도 엿볼 수 있지요.” 하고 활동에 참여한 한 사제가 말했다.

동수들은 먼저 구(舊) 시가지를 들렀다. 노숙자들은 주로 육교 아래나 도로 옆에 모여 있었는데, 우리의 선물을 받고는 매우 기뻐했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다가와 선물을 받아 가기도 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70년 역사의 위안조우 노숙자 센터엔 현재 70여 명의 남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직자로서 그 중에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약물 중독자들도 있다. 이곳의 숙박 시설은 비영리 목적

의 자원 봉사 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거주자들은 동수들이 물품을 나눠 주자 매우 기쁜 표정을 지었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원 선생은 우리의 방문에 대해 큰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슬리퍼 한 켤레만 가져왔더라도 그들은 똑같이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훈훈히 만들어 주었고, 세상에 아직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짧은 순간이나마 휴식을 제공하는 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쉬고 떠나면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요.”

홍콩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 다른 지역과 다른 노숙자 센터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옷과 채식 음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포모사 소식



포모사 전국에서 온 한의사 및 양의사 동수들로 조직된 의료 팀이 미아오리 현 시후 향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난 민더 개방 교도소에서 열린 영성 고양 세미나. 재소자들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테이프 '명상은 사랑의 원천이다'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동수들은 타이난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한편 신실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감동을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장소까지 특별 차량을 운행했다.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일람표
표 1, 표 2 총계 = NT\$ 247,330 (미화 약 7,263.73달러)

표 1: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NT\$)

장 소	일 시	내 역	금 액	부록
진먼	2003. 11. 1.	진먼 주민들에게 영혼의 양식 제공, 진먼 진청 체육관에서 흥법 활동 개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상영, 예술 작품전, 영성 고양 세미나, 방편법 전수 및 채식 시식회	15,860	A
원린	2003. 11. 9.	2003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원린 종교 박람회 참가	38,235	B
미아오리	2003. 11. 9.	시후 항공소의 환경 보호 운동에 협조,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3,200	C
미아오리	2003. 11. 23.	미아오리 현 시후 향 주민에게 겨울철 온정 나누기 활동, 시후 향 체육관에서 한방 및 양방 무료 진료	30,035	D
타이난	2003. 11. 26.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3. 11.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3. 12. 31.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3. 12. 31.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총계			NT\$87,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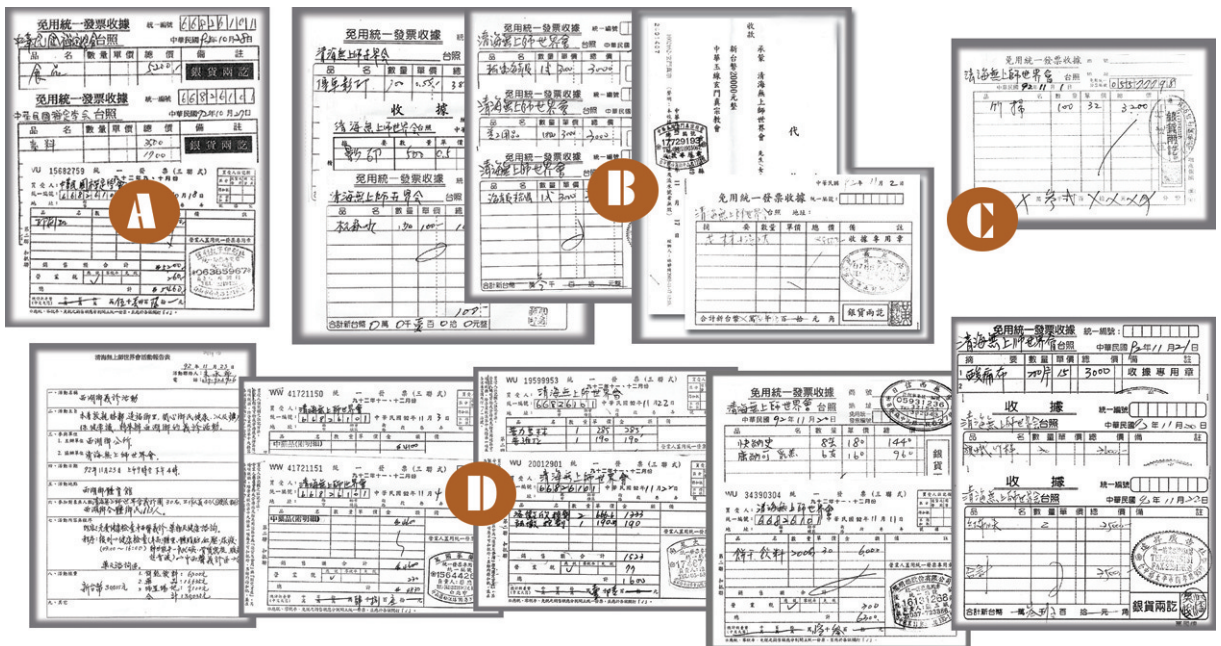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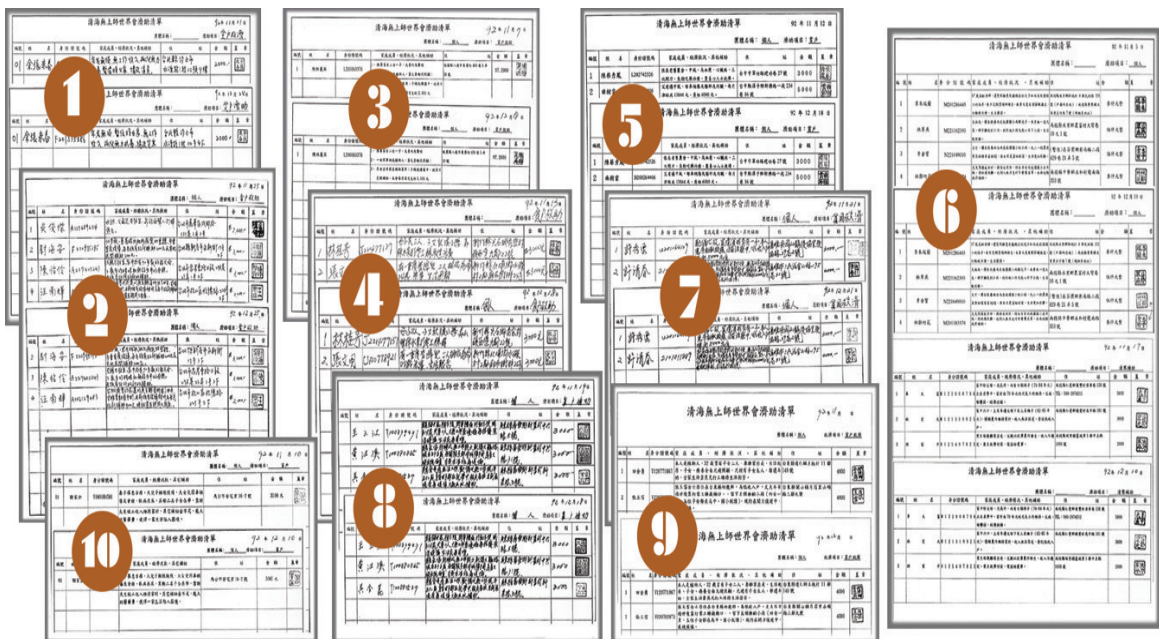


표 2: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빈곤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NT\$)

지 역	2003년 11월		2003년 12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4	10,000	3	8,000	2
타오위안	1	2,000	1	2,000	3
신주	2	6,000	2	6,000	4
타이중	2	8,000	2	8,000	5
난토큐	7	26,000	7	26,000	6
가오슝	2	7,000	2	7,000	7
핑둥	3	9,000	3	9,000	8
타이둥	2	8,000	2	8,000	9
평후	1	3,000	1	3,000	10
월별 소계	25	\$81,000	24	\$79,000	



2003년 칭하이 무상사 및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일람표

국 가	연 월	내 역	금 액	달러 환산	참고 뉴스잡지
캐나다	2003. 1.	어울락 빈곤 가정에 새해 선물	US\$3,013.73	US\$3,013.73	142
대한민국	2003. 2.	대구 지하철 참사 이재민 돕기	US\$2,600	US\$2,600.00	144
대한민국	2003. 2.	대구 지하철 참사로 부상당한 소방관 돕기	31,573,800.00원	US\$28,700.00	146
미국	2003. 3.	LA 음악 고등학교 악기 구입비 지원	US\$4,000.00	US\$4,000.00	144
인도	2003. 4-6.	북서부 지역 가뭄 이재민 구호 활동 및 우물 공사	US\$116,294.70	US\$116,294.70	144
	2003. 7.	북서부 지역 농부들에게 종자 구입	1,367,268.00루피	US\$29,983.95	146
아르헨티나	2003. 4.	산타페 지방 수재민 구호 활동	US\$25,489.25	US\$25,489.25	144
	2003. 11.	산타페 지방 수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신발 선물	US\$4,221.44	US\$4,221.44	148
알제리	2003. 5.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US\$153,417.61	US\$153,417.61	144
캐나다	2003. 8.	퀘벡 수재민 구호 활동	Canadian\$25,600.28	US\$18,727.34	146
	2003. 8.	브리티시컬럼비아 화재 이재민 구호 활동	Canadian\$68,457.00	US\$50,151.50	146
대한민국	2003. 9.	태풍 매미 구호 활동	48,641,690원	US\$42,300.00	147
	2003. 11.	태풍 매미 수재민 추가 구호 활동	8,820,000원	US\$7,670.00	148
미국	2003. 10.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이재민 구호 활동	US\$4,000.00	US\$4,000.00	147
태국	2003. 11.	산간 벽지 부족민 지원 활동	80,046.50바트	US\$2,020.36	148
이란	2003. 12.	지진 구호 활동	579,554,564.00리알	US\$70,000.00	148, 149
포모사	2003. 1-12.	매월 정기 불우 이웃 돕기	NT\$1,189,000.00	US\$34,970.59	144, 146, 148, 149
	2003. 1-12.	전국 자선 활동 및 공익 활동	NT\$681,895.00	US\$20,055.74	142, 144, 146, 148, 149
	2003. 5-6.	전국적인 SARS 방역 활동 지원	NT\$1,272,086.00	US\$37,414.29	144, 146
총계				US\$655,030.50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 포모사-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petrusl2k@earthlink.net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r. Jim Su		1-408-253-8516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SumaJim@aol.com	
		mrleone@hotmai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 파라과이				thanhgiang1990@yahoo.com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ec_py2002@yahoo.com.ar			torahi@ureach.com	
★ 페루			플로리다 :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케이프코칼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cuscoentro@yahoo.com			Thaidbzad@msn.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tls1095@earthlink.net	
	edyter@viabcp.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ekalbekim@yahoo.com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punocentroperu@yahoo.es			georgiacenter@hotmail.com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larv@terra.com.pe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살바도르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hawaiictr@hotmail.com	
	quijano_manuel@yahoo.es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 트리니다드 섬				DorothySakata@aol.com	
	Mr. Ray Alibocus	1-868-637-1054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alibocus@tstt.net.tt			caominhtran@yahoo.com	
★ 미국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에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Duchanh@aol.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kennynngoaz@hotmail.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FNGUYEN@MAIL.STATE.KY.US	
	bobedj@cox-internet.com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캘리포니아 :				jlfontenot@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MARYLANDCENTER@yahoo.com	
	tllin54@hotmail.com		메사추세츠 :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anGabriel99@hotmail.com			shinemound@earthlink.net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Ms. Gan Mai-Ky	1-508-791-7316
	gmartin0999@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saccenter.ca@usa.com			mading02000@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nyinsd@juno.com			quach001@msn.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미주리 :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Steck5208@aol.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sfcenter@hotmail.com			gchen@umr.edu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Sophie,Lapaire@eng.sun.com			croberts@lps.org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네바다 :		
	Edgar-Teresa@worldnet.att.net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r. Loc Petrus	1-510-276-4631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워싱턴 :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JohnChou@ymusa.com			benptran@aol.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Mr. Edward Tan	1-206-228-8988
		anawarskas@hotmail.com			edtan@usa.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dong@phys.columbia.edu			sumaemc@yahoo.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 푸에르토리코		
		dcouch@rochester.rr.com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disnalda@caribe.net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shive@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irn_up@yahoo.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harry_1@sby.dnet.net.id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팔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 일본			페낭 센터	6-018-2413832 pgsmch@pd.jaring.my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 몽골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baasandamba@yahoo.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한국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 네덜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유태인	02-795-3927	포카라	센터 977-61-28455
	이지자	02-599-1701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Mr. Shiva Bastola	977-61-28255
	송호준	051-957-4552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황상원	051-805-728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신현창	063-254-5824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 태국	
	이재문	032-244-1250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김익현	053-633-3346	Mr. Wu Peir Yuan	66-1-8248294
	한선희	053-767-5338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차재현	053-856-3849	콘캔	센터 66-43-378112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송크라	센터 66-74-447224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유럽***	
	김삼태	054-821-3043	★ 오스트리아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말레이시아			★ 벨기에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우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s. Lidia Kong 34-91-5470366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체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영국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s. C. Y. Man	44-1895-254521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pnl@matters19.freemove.co.uk			rosrobbery@aol.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l.wellers@ntlworld.com		phongloveme@yahoo.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Mr. Alan Khor	61-3-9857-4239
		stmchwo@hotmail.com		ckhor@bigpond.net.au	
★ 스코틀랜드			퍼스	센터	61-8-9242-1189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lillig2002@yahoo.co.uk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헤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넵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오세아니아 ***

★ 호주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l@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美)를 통해 기쁨을 나누다

여배우 스티라 스티븐스와의 특별 인터뷰

미국 캘리포니아 LA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는 1999년 3월 21일 비벌리힐즈 호텔에서 열린 '오스카의 밤' 연회에서 세계적인 여배우 스티라 스티븐스를 만나 절친한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셨다. 이듬해 제9회 '스타 100인의 밤' 당시 스승님은 강연 여행으로 바빠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스티븐스는 스승님께 진심된 인사말을 보냈다.



스티라 스티븐스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여자! 여자! 여자!」, 「너티 프로세서」 등 고전을 비롯해 90여 편의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한 국제적인 스타이다.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 제리 루이스, 진 해크만, 데이비 레이놀즈, 빙 크로스비, 랜디 트래비스, 윌리 윈터스와 같은 대스타들과 함께 출연했다. 스티븐스는 동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칭하이 무상사와 기타 자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Q: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S: 최근에야 겨우 서부영화 시나리오를 마쳤습니다. 제가 감독할 건데, 「질주(Hard Ride)」라는 제목이에요. 정말로 멋지고 잊지 못할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해! 다시 보고 싶어.”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Q: 아드님인 앤드류는 어떻게 지내나요?

S: 현재 영화 제작 총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앤드류가 최근에 제작한 영화는 손 팬이 감독하고 잭 니콜슨이 출연한 「플레지」입니다.

Q: 칭하이 무상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S: 영광스럽게도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 파티에서 처음 뵈게 됐지요. 스승님이 창작하신 의상, 돌, 부채 등의 예술성은 정말 비할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격조가 높아서 스승님을 예술가로서 존경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승복을 입지 않으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중에야 스승님이 전에는 출가승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통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 배우들도 사람들에게 미를 통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행운과 그것을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포옹할 때면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는데, 그러면 내 기분도 무척 좋아지거든요. 우리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영향이 큼니다. 그래서 여력이 닿아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만 있다면 정말 큰 기쁨이지요.

스승님이 하시는 훌륭한 일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스승님이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직접 만져 실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스승님은 무한한 비전과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매우 인간적이고 누구와도 기꺼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아무 차별심 없이 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의 큰스승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거부(巨富)들과도 앉아 얘기할 수 있었죠.

좀 전에 말했듯이 스승님은 예술 작품을 통해 당신의 지혜와 영감,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십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여성복, 그림, 등(燈), 패션 등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며,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당신이 인생에서 느낀 삶의 기쁨과 천국의 경험을 전해 줍니다.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삶에 어느 정도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언젠가 한 남자는 설거지하는 시간이 자신의 명상 시간이라고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필요 없는 육체적인 일을 할 때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촛불을 바라봐야만 명상인 게 아닙니다. 원하면 그것도 할 수 있지만요. 낙엽을 쓸거나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는 등 그다지 두뇌를 쓸 필요가 없는 일을 하면 마음, 두뇌는 상상력이 풍부한 그 어떤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는 법을 알고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하니까요.

우린 마음의 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비전을 갖게 될 때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단지 지혜의 방에 도달해 이런 것들을 활짝 열어 보일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Q: 마지막으로 칭하이 무상사께 전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S: 칭하이 무상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스승님의 예술 작품이 실린 멋진 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전을 나눴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습 또한 감동적이었어요. 저 역시 작은 일에서나마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님의 노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듯이 가족과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제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승님은 정말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인터뷰는 썸 TV '예술과 영성' 제51편에 실렸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칭하이 무상사/ 1994. 6. 7.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35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해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악한 마음만 없애 버리면 적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674 사랑과 웃음 속에 거닐다

1999. 11. 29.-30.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국제 선상
(영어+24개 국어 자막)

내용 요약: 어떻게 하면 항상 천국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가? 스승님은 수행이든 세속의 일에서든 미소가 늘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단 하나뿐인가? 각자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618 성스런 낭만

1998. 5. 6. 한국 영동 국제 선오
(영어+중국어 자막)

내용 요약: 진정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부터 아름다운 낭만적인 분위기를 발산할 수 있는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감정을 긴장시키고 명상할 때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냥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하고 생각만 하면 긍정적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가? 왜 관음법문 수행은 우리를 높은 경지로 데려갈 수 있는가?

648 전쟁을 끝내는 법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강연
(영어+중국어 자막)

내용 요약: 어떻게 해야 이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환상의 삼계는 무엇이며 이를 뛰어넘는 방법은? 관음법문과 다른 명상법을 동시에 수행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신과 분리되었는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신을 깨달을 수 있는가? 누가 ‘구세주’ 이고 누가 ‘신의 화신’ 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세계 각지에서 하신 스승님의 영어 강연, 인터뷰, 비공식적 대화 가운데서 엄선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광범위한 영적 주제에 대해 직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쉽고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자고이래로 생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곤혹스럽게 해 왔다.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는 모든 인류의 궁금증과 갈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칭하이 무상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래전부터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다다. 만약 삶을 구하는 이 지도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영적 안내서를 통해 여러분은 곧 고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미궁과도 같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CG03)<중국어> (DVD#737)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

2002. 5. 11. 스승님 생일 축하 행사, 플로리다 센터

(CD-CG05)<중국어> (DVD#739)

스승님의 확신

2002. 5. 12. 스승님 생일 축하 행사, 플로리다 센터

(CD-725)<영어>

겸손한 생활 방식

2001. 12. 22-23. 국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 플로리다 센터

내용 요약: 동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품성을 배울 수 있는가? 스승님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 영화를 선정, 우리에게 추천하시는가? 일찍이 독일에서 사시는 동안, 스승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그만 감독이 연출한 ‘독사의 알’ 이란 영화에 출연하셨다. 스승님이 출연하신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은가? 관음법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동수들은 수행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수행법을 찾아 여기저기 ‘쇼핑’ 하기를 좋아하는 동수들에 대해 스승님이 해주신 조언은?

